

“이데올로기 비판”으로서 문학적 가치평가에 관한 시론*

허 창 운

(북문과 교수)

1. 서 론

적어도 대학차원에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자기나름으로 문학작품 일반에 대해서 가치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자부할 것이다. 이 작가는 “민중적”이지만 저 작가는 “소시민적이다”느니 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문학의 이념적 성격이나 가치평가적 특징에 대한 언급에 인색하려 들지 않는다. 물론 한때는 학문적 이상으로서 “물가치성”이나 “自由浮動的 지식인상”이 신봉되기도 했지만 오늘의 학문적 대세에 따르면 가치판단 없는 학문적 태도는 자기 앞에서 추락하는 이데올로기적 낭떠러지에 눈을 감고 막무가내로 다가서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 하지만 문학적 가치평가론에서 진정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가치평가를 제시하기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 흔히 목격되는 가치평가의 일반적 경우에는 다분히 심정적 방향에서 인상적 비평의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비단 아마추어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의 문학비평에 있어서도 심심찮게 발견되곤 한다.

사정이 이렇 수밖엔 없는 이유로 말하자면, 문학의 가치평가작업이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그 根源을 찾아야할 것이다. 문학에 관한 전문서 목록을 다 뒤져보아도 문학의 가치평가론에 관해 심도있게 논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문학적 가치평가는 정말 자의적인가. 문학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존재하지 않는가. 소위 “고급문학”으로 범주화되고 있는 문학작품들의 가치는 어떻게 설정된 것이며 또 그 가치는 영원불변인가. 이를테면 김홍신의 《인간시장》은 대중적 “통속소설”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반면에 이문열의 《영웅시대》는 오늘의 고전에 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 이러한 물음들은 결국 모두가 문학의 가치평가에 관련되는 사안들이다.

우리는 차체에 이 문제권과 연결해서 문학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물음들을 제기함으로써 철저한 이론적 규명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현단계의 문학적 가치평가론의 제문제에 비판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평가가 어렵다는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평가기준의 유동성과 가치관의 가변성을 그 일차적인 이유

* 이 연구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1991년에 지원한 학술연구비로 이루어졌음.

로 들 수 있다. 우리가 고전주의적 미학관에 빠져 별다른 생각없이 전래된 문학관과 가치관을 추종하면서 문학비평작업을 수행하고 문학적 가치평가의 관행을 따르던 일이 흘러간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더구나 동·서 이데올로기의 처절한 각축전조차도 느닷없이 파장이 되고 만 오늘날 우리의 문예학계에서 급선무로서 떠오르는 과제 중의 하나는 우선 우리의 문학연구 구도를 시의적절하게 재편하고 굳게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그동안 우리의 문예학계에서 심심찮게 거론되기도 한 가치평가적 자세로서 “이데올로기비판”의 정체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려 한다. 그리하여 다각적으로 문제성을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문학적 가치평가의 위상을 시론적으로 규명해보려는 데에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을 두겠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통념의 허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당한 가치평가의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소망스러운 문학적 가치판단력 제고교육의 실천적 당위성을 우리의 명제로서 천명하고자 한다. 이는 혼란스러운 가치의 아노미현상들로 인해 목하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병폐들을 순화시키고 생활공동체의 건강한 물갈이와 진정한 인간화를 추구하기 위한 “해방적” 노력은 착실한 문학교육적 기초에 기반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위상

이제 동서냉전의 종언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문학적 이데올로기비판의 마르크시즘적 예봉이 급기야 다국적 자본주의의 마수를 타파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단의 비극을 뛰어넘어 통일된 독일사회에서도 역시 마르크시즘적 성향의 세력들은 주도권을 상실함으로써 종래의 이데올로기비판적 입장이 수세에 몰리는 듯한 인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문학교육적 일상이나 문예학적 실천에 있어서는 다분히 70년대 이래로 정착되다시피한 이데올로기비판적 평가기준들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실정이다. 물론 80년대의 문예학적 실천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역력히 나타났고 지난 시대의 격렬했던 비판의식의 열기 또한 식어진 것도 사실이라서 그런 동향은 한국적인 지적 풍토와 비교해볼 때 역시 현격한 편차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문학적 가치평가문제나 문학비평적 과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논술들이 대개는 전통적인 가치의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맹점들을 ‘역사철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스스로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민중문학론 참조). 하지만 중층적으로 퇴적된 미해결의 문제들은 우리의 경우 그 성격이 매우 복잡적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편협하고 고루한 단순요법에만 의존해서 제시될 경우 그것의 실효성은 의심스러울 뿐이고, 오히려 천편일률적 구두선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꼭 안성맞춤이다.

마르크스에서 유래하는 이데올로기비판이 60년대의 서독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된 학문적 제규범 내에서 “마르크시즘적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문계의 마르크시즘이 지닌 건설적인 요소들을 수용하여 이를 생산적으로 확충하고 심화시킨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의 학문론적 기반을 專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본고 제 5 장 참조). 그리하여 <이데올로기비판>이란 명칭으로 대변된 학문적 자세는 당시 도전적으로 자신의 입지확보에 전념했던 젊은 문예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상표처럼 선전되기도 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로 말하자면 70년대의 소위 “민족문학파”와 80년대의 “민중문학파”의 자세도 폭넓게는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리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물론 이러한 범주화시도는 그 움직임이 아직도 변화의 도상에 있고 유동적인 실정이라서 필경 반론과 이전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지향에 입각해서 구분해볼 때 그러한 자리매김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굳이 우리가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의 실태를 새삼스레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적 텍스트와 문예학적 텍스트에 대한 이 진영의 가치평가들이 비록 그 개념성이나 논증형식의 관점에서 상당 부분 자동화된 점이 있고 또 용어구사적 층위에서도 述語 Diskurs 형식들이¹⁾ 식상할 정도로 진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에서는 아직도 적절히 보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격변하고 있는 주변환경이나 여건은 도외시한 채 계속 구태의연한 일관성만을 고집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논리와 도식적 사고에만 안주하려는 세력은 언젠가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정직하게 자기비판을 곁들이는 겸허한 反省의 자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필자는 이러한 입지에서 시의적절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 문학연구적 자세로서는 역시 대화적 성격의 <이데올로기비판적> 관점, 즉 구태의연한 계급갈등적 논리와도, 물가치적 과학주의적 일원론과도, 나아가 지식사회학적 범이데올로기론과도 일정한 거리를 취하는 담론적 논리의 이데올로기비판을 새로이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 문학과 관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비판적 처리방식이 지닌 탁월한 실천력은 무엇보다도 전통적 가치평가론의 역사성을 강조함은 물론 또 그것이 요구하는 타당성도 여러 각도에서 의문시함으로써 문학의 진리내용과 그 허위성을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작품분석 내지 언어분석을 통해 입증하는 데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츠 Thomas Anz²⁾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구에서 이데올로기비판적 입장을

1) 이 개념과 談論개념에 관해서는 허창운(1987³⁾):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출판부 p.13 참조. 각주의 문헌제명은 인명다음 ()속의 연도로써 맨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Thomas Anz(1982): Wertungskriterien und Probleme literaturwissenschaftlicher Ideologiekritik, in: Bernd Lenz/Bernd Schulte-Middelich(Hg.), Beschreiben, Interpretieren, Werten,

대변하는 문예학자나 문학비평가들(예컨대 루카치, 벤야민, 마르쿠제, 아도르노 등)의 유형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그 다양성의 특징들을 낱낱이 열거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그 대표적인 유형들만을 일반화와 단순화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뚝뚝그려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역시 교육적 배려뿐 아니라 피상적으로만 알려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비판적 처리방식의 윤곽을 이 기회에 좀더 구체화해서 낱설게 해보자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이론은 결코 단세포적 동질적 현상이 아니다. 여기엔 근대적 문학이론이 운위되기 시작한 이래 다양한 관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여러 변종들이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개별적으로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는 있다하더라도 역시 가치평가의 상이한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보편적 이론모델이라는 점에서만은 대체로 일치한다 하겠다. 더구나 이러한 비판적 가치평가의 제구상이 전제로 삼고 있는 공통적인 입장은 문학적 가치평가문제가 문예학적 분석의 대상영역들과 동일한 차원의 문제영역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규범에 대한 성찰, 방법비판 및 학문비판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테두리 안에서 제기되어야 할 복합적 성격의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비판적 가치평가이론의 과제는 바로 “비판적인 개별판단의 근거를 밝힘과 동시에 그 판단의 가치론적 기초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³⁾ 데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예학적 이데올로기 비판은 사회적 제규범과 제가치에 대한 비판이라는 성격을 지니면서 문학이 독자들에게 매개하는 사회적 현실의 제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일종의 심급이라는 위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련의 제한된 가치평가기준들의 도움을 빌어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 비판의 근거에 놓인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문학적 가치평가는 문학과 사회 간의 연관관계의 문제일 뿐더러 또한 텍스트 내에서의 의사소통이나 텍스트에 관한 의사소통의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을 밝히는 일도 과제로서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비판적 가치평가구상의 전제가 되는 것은 문학을 사회적 실천의 형식 내지 사회정책적 가치설정 기능으로서 해석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단초들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청은 무엇보다도 가치평가이론의 가치론적 가치기반을 유보화하는 일, 다시 말해서 정치적, 윤리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기반구축에 대한 談論의 필요성에 대한 각별한 강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담론의 기반이 되는 가치론적 가치는 바로 동전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 “해방”과 “주체의 성숙성”⁴⁾이라 칭해진다.

München, pp.214-247 및 Monika Schrader(1987): *Theorie und Praxis literarischer Wertung.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d -didaktische Theorien und Verfahren*, Berlin/New York, pp. 231-242 참조.

- 3) N. Mecklenburg(1979): *Wertung und Kritik als praktische Aufgaben der Literaturwissenschaft*, in: I. Degenhardt(Hg.), *Literarische Wertung*, Stuttgart, p.147.
- 4) R.v. Heydebrand(1984): *Literarische Wertung*, in: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d. 4, hrsg. von K. Kanzog u.A. Masser, (pp.828-871), p.859.

이처럼 문예학적 가치평가의 토론 내에서 문학이 지닌 이 해방적 기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 상이한 관점을 표방하는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이론으로는 다음의 4가지 변종들이 있다.⁵⁾ 1) 소위 역사철학적 구상(Adorno, Benjamin, Lukács, Marcuse 등); 여기서는 문학이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또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비판의 매체로서 그리고 현실의 유토피아적 반대상의 기획으로서 이해된다. 2) 비판이론과 마르크시즘적 문학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단초들(Mecklenburg, Ch. Bürger, M. Nutz, Th. Anz, Schulte-Sasse 등). 3) 미적 경험의 이론과 연관해서 기초된 “긍정적” 해방적 이론(H. Schläffer, Ter-Nedden, Jauß 등). 4) 반혁명적 지향을 가진 단초들(Bezzel); 이들은 문학의 경제적 도구화를 반대하고 일상의 대안적 미학화 형식들을 목표로 한다.

특히 우리의 입지에서 각별히 관심이 가는 유형은 무엇보다도 비판이론의 틀 속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마르크시즘적 문학이론에 근거해서 개발된 비판적 단초들(위에서의 제 2항)이기에,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이 제시하는 명제들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 속에는 문학적 가치평가의 이론과 실천을 위해 명시적으로 성안된 구상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적 이론형성의 다기한 토론연관을 여기서 모두 다 추수할 수는 없고 단지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문제점들만 추출해내어 그 진가를 규명해보는 작업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것은 i)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정의문제, ii)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제기준에 대한 물음, iii) 이데올로기비판에 대한 비판적 관점, iv) 결론적으로 문학적 가치평가의 세 지평을 위해서 기능적 가치평가와 심미적 가치평가를 매개시키는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정의문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이데올로기 개념은 자기 사회·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예술·미학적, 철학적, 도덕·윤리적 제 관념체계로서 이해될 수 있다.⁶⁾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헤겔, 마르크스, 루카치 등에서 출발하는 문학사회학적 이론이 지니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에 관련된 사항이다. 즉 문학텍스트는 어떠한 연관관계로서든 “이데올로기”들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학텍스트의 “현실”묘사는 한 집단이나 계급의 집단적식에 의해서 각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두 가지 물음이 생겨난다. 우선 그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정의에 대한 물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바른’ 이데올로기,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이데올로기와 진리” 내지 “이데올로기와 과학”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의 《마르크

5) v. Heydebrand, 같은 곳, p. 858ff.

6) Peter V. Zima(1982): Literatursoziologie/Textsoziologie, in: Dietrich Harth/Peter Gebhardt (Hg.), Erkenntnis der Literatur, Stuttgart(pp. 161~194), p. 169f, 참조.

시즘과 문학》⁷⁾이, 또 최근에는 지마 Peter V. Zima의 《이데올로기와 이론》⁸⁾이 상세하게 거론하고 있다. 특히 윌리엄스의 경우 이데올로기 개념은 부분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세 측면으로 나뉘어져 정의되고 있다. 즉 마르크시즘뿐 아니라 지식사회학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는 이데올로기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거기서는 첫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특정 계급이나 집단을 특징짓는 신념의 기본원칙들의 체계”라는 정의이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참된 지식 내지 과학적인 지식과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그릇된 관념들 내지 허위의식의 형식들인 환상적 신념의 기본원칙들의 체계”로서 이데올로기의 정의가 문제된다. 그리고 마지막 정의에서는 첫번째 정의에서나 두번째 정의에서도 역시 전제되어 있는 “의미와 관념들의 보편적 생산과정”이 문제가 된다. 여하간에 마르크시즘의 다양한 변종들에서는 처음의 두 정의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의거해서 이데올로기는 집단관심의 표현으로서 뿐 아니라 또한 <허위의식>으로서 정의되는 것이다. 바로 이 개념정의에 입각해서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관련문제를 사회기호학적 서술론적 차원과는 무관하게 내용적으로만 거론하는 입장을 정통 “이데올로기비판적” 자세라고 통칭한다면, 이것의 맹점을 술화비판적 관점에서 間述話的 interdiskursiv 분석을 통해 극복하려는 입장이 지마의 기본자세라고 볼 수 있다. 지마가 제시하는 비판적 제한적 이데올로기 정의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특정 社會語 Soziolekt와 동일시될 수 있는 술화적 부분체계로서 그것은 의미론적 이분법과 그에 상응하는 서술적 처리방식(주인공/反주인공)에 의해 지배되며 그 체계의 진술주체는 자신의 의미론적이고 통사론적 처리방식을 성찰하여 공개적 대화의 대상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술화와 사회어를 유일하게 가능한(진실되고 당연한) 것으로서 드러냄으로써 그것들을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대상들의 전체성과 동일시한다.”⁹⁾ 물론 이러한 이데올로기 정의에 입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언술행위 자체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사회기호학적으로 가리는 작업으로 문예학은 재정립될 당위를 지니게 되고 그 작업영역 또한 새롭게 구축되는 결과가 된다.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이데올로기가 스스로 넓은 의미에서 문학의 형태로 전파되며 또 문학 전체가 역시 이데올로기 형식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진영들이 합의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럴 경우 이데올로기는 문학사의 한 내재적 구성요소가 되고 또한 문예학의 기본범주들 중 하나가 된다. ‘독일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닌 사변적·관념론적 성격은 물론 사적 유물론의 정착과정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청년헤겔파에게 가한 비판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역시 의식 과정의 진행에 대한 본래의 추동력이 미지의 상대로 머문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이미 엥겔스는 간파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이데올로기

7) Raymond Williams(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p.55 참조,

8) Peter V. Zima(1989): *Ideologie und Theorie*, Tübingen.

9) Peter V. Zima(1991): *Ästhetische Theorie*, Tübingen, p. 385f.

개념은 급기야 ‘진도된’, ‘허위의식’ 의식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허위의식’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예컨대 분업, 사유재산제, 계급의 현존 등)의 지양을 유독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역사적 과제와 결부시켰던 데에서 마르크시즘적 주장의 독단이 생겨나게 된다. 자칭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선언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 지배계급이 됨으로써 현실에 관한 과학적 견해의 전제들을 산출하여 상기한 조건들의 타파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되었고 또 그렇게 실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0월 혁명이 성공한 후로 어언 70년도 훨씬 지난 오늘의 현실은 사적 유물론이나 유물변증법이 예언한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져버렸고, 자신이 진리라고 주창했던 것들이 이제는 스스로 허위의식의 결과로 판명되는 역사적 아이러니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동구진영의 파산선고와 더불어 독재체제로 말미암아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제3세계의 몽매한 불행에 직면해서 그것이 혁명 내지 계급이데올로기로 판명되든 아니면 질서 내지 공안이데올로기로 분석되든 여하간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 허위의식으로 지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가 문학텍스트나 주체의 의식 속에 은폐됨으로써 겉보기에는 도무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실체를 批判과 反省을 통해서든 물론 텍스트분석 내지 述話분석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구명하여 해체시켜야 한다는 당위에서 문예학은 자신의 과제에 새로이 접근할 수 있다.

4.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제기준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이론 내에서는 문학기해나 학문이해의 인식주도적 관심에 대한 성찰이 모든 기준에 대한 고유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학문이해에 있어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역사적 경험”을 메클렌부르크는 “역사적 선형 Apriori”¹⁰⁾이라 표현한 바 있다. 따라서 미초월적 경험으로서의 역사적 선형이 비로소 미적 가치규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가치평가의 기준에 대한 물음은 그 밑바탕에 깔린 비평가의 인식관심에 대한 분석과 이데올로기 개념의 정의를 요구하게 된다. “인식관심을 거쳐서 문예학은——이와 더불어 문예학에 의해 명문화된 모든 가치판단도 역시——일반적 삶의 실천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오직 이 연관을 공개함으로써만 문예학은 자기 스스로 제안한 해석전략과 가치평가전략을 논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¹¹⁾

10) N. Mecklenburg(1979), in: I. Degenhardt(Hg.), 같은 곳, p.147.

11) N. Mecklenburg(1980): Wertung und Kritik als praktische Aufgaben der Literaturwissenschaft, in: P. Gebhardt(Hg.), Literaturkritik und literarische Wertung, Darmstadt, p.394.

가치평가를 관심의 상황에 대한 계몽으로서 의미해석하는 일에 전제가 되는 것은 구조주의적이고 마르크시즘적 문학이론에 의거해서 규정된 문학개념과 학문개념이다. 문학과 학문은 사회적 의사소통연관의 부분체계 내지 사회적 행위의 제기로서 해석된다.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갖는 이러한 관점은 비판적 가치평가성찰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문학이 갖는 미적 가치의 척도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문학을 통해 수행된 사회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비판과 그것의 수정은 가치규정의 출발점이 되고, 이에 따라 “그 작품이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현실이해에 개입하는가?”¹²⁾의 여부가 그 작품의 가치평가에 대한 척도가 된다. 예술과 사회 간의 이러한 관계를 가치평가하는 기준은 그 바탕에 놓인 사회개념 내지 이데올로기개념에서 생겨난다. 명시적으로 성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비판적 가치평가이론의 밑바탕에는 천편일률적인 기준들이 놓여 있다. 즉 “해방”이라는 가치론적 기본가치에서 출발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내용적 판단의 제일 상위에 있는 이 원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텍스트들이 “허위의식”을 반영하고 있는지, 또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안정화시키는지, 아니면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 인간에 대한 의부지배를 지양하는 데 기여하는지, 혹은 유토피아와 진보를 가능케 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평가가 내려진다. 말하자면 텍스트들이 해방이라는 주도목표 아래 주체의 성숙성을 지향한다고 판단될 경우,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규정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차라리 원칙들로서 생각된 것이며, 이에 근거해서 “무엇이 역사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인지”¹³⁾가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뿐이다. 긍정적 판단범주들로서라기보다는 차라리 “탄핵”의 카타로그로서의 뜻을 가진 비판적 가치평가의 기준목록을 안츠¹⁴⁾는 다음과 같이 수합하고 있는데, 그가 구분하는 비판적 가치평가실천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적/지배안정적 (對 비판적/해방적). 2) 보상적 (對 유토피아적/선취적). 3) 퇴영적 (對 진향적). 4) 은폐적/조화적 (對 리얼리즘적). 5) 물화적 (對 역사화하는/사회화하는). 6) 부정주의적/절망적/무진망적 (對 진실적).

그러나 비판적 가치평가실천의 예화들에서는 이 기준들이 비일률적으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통속문학은 그것이 의식형성을 조작하는 제 전략들을 밝히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비판이론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지닌 조화적, 반계몽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다.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단초들이 가치평가실천의 기준들을 독단적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談論을 통해 행동규범들을 항시 새롭게 정당화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는 한, 가치평가척도들은 필연적으로 비교정적 상태로 있게 되며 해방적 관심 여하에 따라

12) Ch. Bürger(1973): *Textanalyse als Ideologiekritik. Zur Rezeption zeitgenössischer Unterhaltungsliteratur*, Frankfurt a.M., p.17.

13) N. Mecklenburg(1972): *Kritisches Interpretieren*, München, p.110.

14) Th. Anz(1982), 같은 곳, p.217 참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비판이 현재 서구에서 맞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해방”과 “성숙성”이라는 가치론적 가치들이 “공허한 공식”으로 치부됨으로써 구체적 가치평가실천에 대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반론에서 찾아질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의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실천 자체도 그렇거니와 또 이 이론들이 제시한 해방적 요구도 역시 고착화된 개념의 상투문구로 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또 다른 규범으로도 뒤바뀔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셈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함정들을 안고 있는 제반 범주들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다음에서 점검해봄으로써 우리의 입장에서 그 약점들의 보완책 강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또 철저한 비판적 평가의 실천작업도 아울러 모색될 수 있을 것인지 두루 주목해보기로 한다.

4.1. <해방>의 개념¹⁵⁾

이데올로기비판적 척도들의 위계에 있어서 최상위의 자리에는 여타의 모든 다른 척도들을 종속시키는 <해방>이라는 기초가치가 위치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개념의 정의에서 결과하는 것이다. 필연적일 수 없다고 보는 기존의 사회적 지배관계를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의식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은폐시킴으로써 “지배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고형식들은 모두 “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비판의 최고가치는 즐겨 <해방>이라는 개념으로 대변된다. 숄테-자세의 표현에 의하면 “비판적 독서에 있어서 최상의 내용적 기본명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자원의 강제와 사회의 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¹⁶⁾ 문학을 내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해방>을 최상의 기본명제로 정당화하려는 자신의 시도에서 그는 이 개념에 대해 건설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규정들을 인증으로 끌어대고 있다. “언제나 <해방>을 언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타자에 의한 인간규정을 지양하는 일이다. 기존의 일면적인 사회적 의존관계나, 제반 불이익, 부당함 등은 해체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가능한 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방>은 사회적 관계를 특수하게 변화시킴을 말한다. ...하지만 구 질서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야 하는지는 다양하게 열려 있다. 간단히 말해 해방은 하나의 건설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부정적 개념이다.”¹⁷⁾

이로써 <해방>은 역시 <자율성>, <자유>, <인간성>과 같은 개념이 소속되는 의미장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인식될 수 있다. 물론 해방이라는 개념은 여기서의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다소는 모호할 수 있고 또 그것들처럼 역사적으로 시민적 계몽주의와 독일관념론의 전통권에 자리매김될 수 있다. 최고의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로서 <해방>은

15) 이하 제Ⅳ장은 Thomas Anz(1982), 같은 곳, pp.217-231 참조.

16) J. Schulte-Sasse(1976): Literarische Wertung, Stuttgart, p.194.

17) W. Lempert(1973): “Zum Begriff der Emanzipation”, in: Emanzipation, hg. v.M. Greiffenhagen, Hamburg (pp.216-226), p.217f.

규범적인 논증의 논리를 통해서도 더 이상 추궁될 수 없는 가치론적 기본명제의 위상을 지닌다. 하지만 그것은 간단히 <진리>로서 독단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개념을 사용하는 자는 그 기본원칙에 관한 한, 문학비평적 談論에 가담하는 자들의 습意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들 간에 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에 있어서 기초가치는 인간에게 행복을 약속해주고 불필요한 자연강제나 본능에 의한 구속, 내지 사회강제로부터 스스로 해방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된 해방을 대화를 통한 합의의 실천으로써 우리의 민족문학이나 민중문학도 역시 함께 추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면 그것도 분명 이데올로기비판이라는 대열에 서는 것이고 또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문학연구자들 역시 같은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학적 내지 문예학적 활동은 보상적이거나 퇴영적이지도 않으며 은폐적이거나 물화적이지도, 또한 무전망적이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因子들은 결국 <해방>이라는 기초가치로부터 유도된 규범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

4.2. 유토피아적·선취적 인자에 반하는 보상적 인자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에서 해방저해적이거나 “지배안정적인” 문학텍스트로 통하는 것은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결핍에 대해서 “대리만족”이나 “가상만족”을 독자의 상상력에 제공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유형의 문학은 무엇보다도 칼 마르크스의 종교비판을 통해 발의된 개념과 논거에 의거하여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데올로기비판가들이 반복해서 인용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종교는 억눌린 피조물의 한숨이다. 즉 무정신 상태의 정신이 종교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무자비한 세계의 마음이 토하는 한숨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민중의 환상적인 행복으로서의 종교를 지양하는 것은 민중의 ‘진정한’ 행복의 요구이다. 자신의 상태에 관한 환상들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환상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한 상태를 포기하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종교비판은 그 맹아에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에 대한 비판이고 종교는 그 눈물골짜기의 후광인 것이다.”¹⁸⁾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은 마르크스의 이 종교비판을 이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하는 프로이트의 진술로써 자주 보완한 바 있다. 프로이트는 예술도 종교와 마찬가지로(꿈과 유사하게) 인간상상력의 활동형식들로 평가했는데, 이 형식들이 “삶의 궁핍”과 “현실적인 곤궁”에 대해 한 가지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¹⁹⁾ 《시인과 공상》이라는 논문에서 이미 프로이트는 이렇게 적고 있다.

18) Karl Marx: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Einleitung, in: Lenk(1972) Ideologie, Ideologiekritik und Wissenssoziologie, Darmstadt/Neuwied, p.105f.에서 재인용.

19) S. Freud(1930): “Das Unbehagen in der Kultur”, Nachdruck in: S.F.: Studienausgabe, Bd. 9. Frankfurt a.M. 1974, pp.191-270, p.212 참조.

“행복한 자는 결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오직 불만족한 자만이 그렇게 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충족되지 않은 소망은 공상의 추동력이며 모든 개별 공상은 일종의 소망의 충족으로서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수정인 것이다. …이러한 공상의 충족 중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것이 예술작품의 享受이다. 이 향수는 예술가의 매개를 통해서 역시 스스로 창조적이지 못한 자에게도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²⁰⁾ 후기의 한 저술인 《문화의 불안》에서 프로이트는 또 “예술에 의해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아늑한 도취경”²¹⁾은 고통을 막기 위해 마약에 취했을 때와 유사한 작용을 고상한 형태로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용에 대해 프로이트가 지닌 회의는 이데올로기비판이 예술과 종교의 보상적 기능에 대해 반대하는 하나의 핵심적 논거가 되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는 다량의 에너지가 헛되이 소실되는 데 대한 책임이 그들(=예술과 종교)에게 있을 것”²²⁾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에 의거해서 문학의 보상적 기능을 비판하는 문예학적 비평은 주로 문학의 한 특정유형에 정향되어 있다. 이 유형은 20세기에 이르러 오히려 관습적이 되어버렸는데, 특히 그것은 오늘날의 이데올로기비판에 의해서 선호되는 대상으로서 “통속문학”권에 속한다.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은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볼 때 결국 아름다운 가상의 긍정적인 문학을 노린다. 즉 현실적인 삶의 경험과는 달리 美, 自由, 善 그리고 正義의 세계에 관한 픽션들을 매개하는 문학, 그리고 작가와 독자와는 달리 발랄하게 윤리적이고 자율적이며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주인공을 지닌 문학,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제 자기세계에서는 결여되어 있기에 독자로서는 매우 아쉬워하는 긍정적 특징들로서 자신의 시적 세계를 장식하는 그런 문학이 바로 이데올로기비판의 목표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는 구분되는 그런 긍정적 문학유형으로 인해 이데올로기비판가들은 또한 만만찮은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런 문학은 때로는 보상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비판적인 기능이나 유토피아적 선취의 기능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서도 역시 유사하게 판단한 바 있듯이 긍정적 세계에 대한 문학적 픽션은 역시 현실세계의 비판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현실세계를 유토피아적 이미지에 따라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견지하거나 일깨우는, 보다 나은 세계의 선취 내지 미래지시적 유토피아로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적 문학비평은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반응들을 보이기까지 했다. 예컨대 동화가 어떤 이에게는 유토피아적 상상의 원천인 희망의 표현으로서 미래적 행복의 “선가상”(E. Bloch)으로 보여졌다면,

20) S. Freud(1908): “Der Dichter und das Phantasieren”, Nachdruck in: S.F.; Studienausgabe, Bd. 10, Frankfurt a.M., pp.169-179, p. 173f.

21) Freud(1930), 같은 책, p. 212.

22) 같은 곳, p. 210.

다른 이에게는 “기분 좋고 걸보기에 무해한 마취제로서 자기나름의 구제책을 통해 일상세계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는”²³⁾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아도르노의 이데올로기비판은 양자택일적 비유(말하자면 문학은 이데올로기이거나 아니면 유포피아라는 명제)의 딜레마를 “변증법적인” 요구를 통해서, 즉 문학을 동시에 두 가지로서, 말하자면 허위의식과 참된 의식이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서 평가하라는 요구를 통해 벗어나려고 시도한다.²⁴⁾ 그 요구에 의하면 문학은 사회적 현실의 진정한 실태를 못보도록 눈가림하는 거짓투성이의 가상임과 동시에 또한 이러한 실태에 대한 항의의 표시요 소의되지 않은 삶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적으로 논증하는 아도르노의 이데올로기비판이 지닌 특징은 온통 이데올로기로 충만된 텍스트로부터도 역시 비판적인 유포피아적 진리내용을 밝혀내려는 작업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는 그 텍스트들을 모조리 나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제비평”을 통해서 그것이 지닌 좋은 점을 가려내어 보존하는 작업이 된다. 하지만 아도르노는 단지 예술작품의 내용만을 평가함으로써 예술작품에 특유한 미적 조직을 그르치게 된다는, 심심찮게 제기된 비난에 속수무책인 그런 이데올로기비판가 부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아도르노의 이데올로기비판은 역시 진정으로 미적인 현상들을 고려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전주의적 미학이 요청한 예술작품의 조화성과 폐쇄성의 이상에 대한 그의 부정적 반응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예술작품의 부분과 전체는 서로 조화롭게 일치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성과 질서정연한 전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화의 이상>은 독일 고전주의의 자기이해와 일치하며 또 예술의 형식적 원칙으로서 한동안 자신의 위치를 굳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집중하는 분업, 기계화, 정치적 사회적 불균형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형식과는 대립한다. 따라서 고전주의적 전체성의 공準을 따르는 “예술은 자본주의적 분업에 의해 인간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왜곡되는 일을 내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주요수단이 된다”²⁵⁾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극복은 “내면적으로만” 머물 뿐,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는다. 이데올로기비판가들도 즐겨 애호하는 이 “내면성”의 개념은 보상이나 승화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거리를 취하면서 스스로를 “자율적”이라고 이해하는 예술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도르노의 유보적 자세는 역시 바로 그 내면성의 개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작품의 반사회적이며 미적인 가상에 대한 아도르노의 兩價的 판단은 미적 질서가 함의하고 있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23) V. Klotz(1970): “Weltordnung im Märchen”, in: Neue Rundschau, H. 1, pp. 73-91, p. 82.

24) Th. W. Adorno(1974²⁾: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p. 239 참조.

25) G. Lukács(1955): Probleme des Realismus, Berlin, p. 51.

“예술작품의 폐쇄성이라는 이상 속에는 서로 다른 이름의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것들은 항시 부서질 수 있는 이미지로서의 화해의 유토피아와 그리고 객관적으로 약화된 주체의 타율적 질서에 대한 동경, 즉 〈독일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두고 하는 말이다.”²⁶⁾ 이 문장은 다시 다음과 같이, 즉 사회적 현실의 “무질서적” 부조화로 인해 약화된 주체는 타주체들에 의해 제공되는 질서에 기꺼이 투항할 준비가 되어 있을 따름이다 라고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폐쇄적 예술작품은 정치적으로 위협스러운 이 준비자세를 자신이 제공하는 질서를 통해서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방식이 지니는 문제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텍스트분석적, (수용)심리적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조합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한 독자가 동화의 낙관주의나 아름다운 예술작품의 조화를 보상적으로 수용하는지 아니면 현실비판적으로 수용하는지, 또는 그것들을 통해 그가 위안을 받는지 아니면 현실의 참상을 변화시키도록 동기부여받는지 등의 여부는 심리학적으로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문학작품이 권고하려하는 것이 비판적 讀法인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독법인지의 여부는 텍스트분석적으로 술화비판을 통해 능히 규명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는 이 범주에 있어서도 철저히 수용미학적 내지 심미적 가치평가에 의한 보완이 요청된다 하겠다.

4.3. 진보적 인자에 반하는 퇴영적 인자

현실적인 요구도 없는 초창기 동화적 성격의 牧歌장르는 현실을 목가처럼 만드는 일 이상으로 높이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유토피아적 성격에 있어서는 역시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기준들의 요구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비판은 보편적으로 한편에서는 과거지향적인 “퇴영적”, “복고적” 유토피아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진보적” 유토피아를 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역사적 발전과 이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의 비회귀성이 지적됨으로써 산업화이전적 생활양식에 정향되어 있는 善한 삶의 문학적 구상들은 몽상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낭만주의적 반자본주의”나 “도피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비판의 꺾리표에 속한다. 예컨대 루카치는 이 꺾리표를 아이헨도르프의 소설 《타우게니히츠》를 평가하는 데 사용했고 또한 표현주의 운동을 매도하는 데에도 이용했다.²⁷⁾ 마찬가지로 실로 반자본주의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권역에서만은) 대체로 기술이나 과학 및 산업에 호의적인 이데올로기비판을 위해서 문학적 반자본주의는 문명적대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생산수

26) Th. W. Adorno(1974²⁾, p.239.

27) Lukács(1952): “Eichendorff”, in: G.L.: Deutsche Realisten des 19. Jahrhunderts, Berlin (Ost), pp.49-65 및 Lukács(1934): “Größe und Verfall’ des Expressionismus”, Nachdruck in: Lukács(1971): Essays über Realismus, Werke, Bd. 4, Neuwied/Berlin 참조.

단의 발전적 진보를 자신의 유토피아적 구상들 속에 통합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방”이란 역시 사회적 의존으로부터 뿐 아니라 또한 자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업기술진보가 야기시키고 있는 엄청난 환경오염문제에 직면해서 그것의 진보적, 퇴역적 성격은 차치하고라도 심지어 유토피아조차도 이데올로기로 판명된 마당이라서 인간의 위상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근대적’ 대증요법들은 과학기술발전에 대해 적대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범주의 평가기준은 새로운 차원에서 재고되어야할 단계에 있는 것 같다.

4.4. 리얼리즘적 인자에 반하는 은폐적·조화적 인자

이데올로기비판의 부정적 가치평가가 애호하고 있는 어휘에는 “미화하다”, “조화롭게 만듦” 뿐 아니라 또한 “은폐하다”도 속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간주되는 텍스트들은 마치 그들이 사회적 현실을 진실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독자에게 현실의 진정한 “리얼리즘적 비판적” 모습이 아닌, “허위적” 현실의 모습 내지 흔히들 말하는 “왜곡된” 현실의 모습을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비판을 위해 건설적인 물음이라면 현실의 왜곡된 시각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시각이 관심에 의해 인도된다고 논증한다. 그것은 매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기에게 의존적인 사람들의 해방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계를 한사코 좋다거나 필요하다고 우기려는 지배자들의 관심을 추종한다. 진정한 현실과 매개된 현실모델의 관심의존성을 은폐시키는 일에 맞서서 이데올로기비판측은 폭로로써 대응한다. 이데올로기비판가들은 보편적 구속력을 요구하는 현실의 다양한 문학적 모델화를 그 대변자인 작가나 집단 내지 계급의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관심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노출시키고, 폭로하고, 또 그 가면을 벗기는 것이다.

항시 이데올로기비판적 해석은 거듭해서 현실적 허위의식의 특정한 특징(“이념소”)들을 지적해낸다. 이를테면 크리스타 뷔르거 Christa Bürger의 텍스트분석이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사회의 실제적인 불평등을 은폐시키고 최소화하는 것으로서)²⁸⁾ 고통받는 인간의 평등이데올로기, 또 “관직과 책임”으로서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²⁹⁾ 또는 (부당한 특권들을 위장하기 위한) “신량한 왕의 이데올로기”,³⁰⁾ “정치를 도덕의 문제로서”³¹⁾ 이데올로기적으로 축소시키는 일과 (정치적 대립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역사적인 것을 개인문제로 만드는 일”,³²⁾ (민중의 역사주도적 역할을 묵살하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이

28) Ch. Bürger(1973), *Textanalyse als Ideologiekritik.*, Frankfurt a.M., p. 76.

29) 같은 곳, p. 72.

30) 같은 곳, p. 91.

31) 같은 곳, p. 75.

32) 같은 곳, p. 67ff.

데올로기”,³³⁾ 또는 (성공을 요행의 문제로 가장함으로써 사회적 기회균등을 은폐시키는) “성공이데올로기”³⁴⁾ 등을 문제시한다. 또 나아가 이데올로기비판은 사회적이고 정치적 대립들이 도덕적인 (선과 악의) 대립, 성적인 (남녀의) 대립 또는 가정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 등으로 축소될 수 있고, 사회정치적 갈등들이 사적 개인적 토대 위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예컨대 부유한 지주가 가난한 소녀와 결혼하는 일, 즉 인간성이나 사랑이 모든 신분적 한계에 가교를 놓을 수 있다는 점 등), 또 처음부터 재산과 교육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들의 사회적 상승을 열성이 보장해준다거나(첩시답기 이데올로기), 혹은 “한 사회의 실제적인 사회적 구분은 해당 계급소속원들의 ‘천부적인’ 능력의 결과가 불충분성의 결과”로 통한다는 점³⁵⁾ 등을 암시하고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정규적으로 대항한다. 이처럼 집단관심 내지 집단이기심에 의해 오염된 이념소들은 예기치않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대한 관심은 매우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스스로 대화의 문을 열어 잠그고 단의성의 신화를 추종하면서 독단적으로 편가르기만을 일삼을 경우 자칫하면 “민중”이데올로기나 “민족”이데올로기도 이 대열에 끼일 수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4.5. 역사화 · 사회화하는 인자에 반하는 物化하는 인자

관심의존적이고, 현실왜곡적인 텍스트특징들의 대부분을 이데올로기비판가들은 “물화하는 의식”의 산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에 의거해서 베르거와 루크만 Peter L. Berger/Thomas Luckmann은 자신의 지식사회학에서 이런 류의 허위의식을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화는 인간적 현상들을 마치 그것들이 사물인양, 즉 인간외적이거나 초인간적인 것인양 파악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도 있다. 즉 물화는 인간의 산물들을 마치 그것들이 인간적 산물들과는 다른 어떤 것, 말하자면 자연의 소여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신적인 의지의 우수광스러운 법칙이나 계시들의 결과인양 이해하는 견해이다. 물화는 따라서 인간이 인간적 세계의 자기 고유한 원저작권을 망각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인간적 생산자와 그 산물들 간의 변증법이 의식을 위해 상실되어버렸다는 사실도 함의하는 것이다. 물화된 세계는 결정적으로 비인간화된 세계이다. 인간은 이 세계를 낯선 사실성으로서,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낯선 작품으로서 체험하는 것이지, 자기 고유의 생산적 업적이 낳은 특유한 산물로서는 체험하지 않는다.”³⁶⁾

물화하는 의식은 예컨대 사회적 규범들을 자연법칙으로서, 기존의 성차별이나 인종적 차별들을 인류학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또 전쟁을 자연스러운 필연성으로서나 운명적인 것으로서, 지배를 신의 의지로서, 아니면 인간의 천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경쟁을

33) 같은 곳, p. 103.

34) 같은 곳, p. 164.

35) Schulte-Sasse(1976²⁾, p. 174.

36) Berger/Luckmann(1969): Die gesellschaftliche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Eine Theorie der Wissenssoziologie, Frankfurt a.M., p. 94f.

생리적으로 조정된 선발의 원칙으로서 이해한다.

인간의 산물들이 더 이상 인간에 의존하지 않는 것 같은 “제 2의 자연”으로 “外化되어 버렸다”고 여기는 물화의식은 자본주의적 분업사회의 구성인자로서의 노동자와 자신의 자유 처분권밖에 있는 노동산물간의 외화를 지적해주는 한, 리얼리즘적 진리내용을 소유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해방적 참여의 전제조건이 되는 하나의 인식을 숨기고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매년 기존적인 사회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19세기의 역사적 사고에서 수련을 받은 이데올로기비평가들이 모든 사회적 현상들의 상대성과 역사적 피제약성을 거듭 힘주어 고집하고 있는 점은 실로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은 모두가 변화과정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는 초시간성과 자연의 제약성에 대한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혐의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들의 불변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로써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태도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증의 맥락에서는 특히 20세기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의 권역에서 만날 수 있는 부정적 인간 경험들, 예컨대 불안, 죄, “被投性”, “비정착성”, 부조리 등을 인간실존의 기본상황성으로서 존재론화하고 있는 문제가 이데올로기비판이 선호하는 대상이다. 이를테면 실존적 고통의 경험과 위기경험이 사회적으로 제약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적 현존재의 무조건적인 구성성분으로 양식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러한 비판의 한 예이다.³⁷⁾

4. 6. 구성적 인자에 반하는 부정주의적·절망적·무전망적 인자

주로 통속화된 고전주의적 미학의 권역에서 나온 美文學에 정향된 문예학적 이데올로기 비판은 대체로 부정적, “비관주의적”, 반미학적, 반고전주의적 문학——독일어권에서는 이것이 대강 표현주의(1910) 이래로 거듭해서 소위 “고급”문학에 대한 특징이 되고 있는 터인데——과 관계할 경우, 당황하거나 무지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이 문학이 실존적인 결손 경험들을 존재론화하지 않고 사회에서 받는 고통으로서 비판적으로 표출시킬 때 더더욱 그러하다. 반시민적이긴 하지만 역시 부르주아 출신인 지식인들의 예술로부터는 긍정적 유토 피아도 또한 보상적 제시물도 유도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스스로 이데올로기비판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고전주의적 모범에 정향된 문학의 아름다운 가상에 반대하여 이제 醜美의 “진리”를 거기에 맞세우거나——다다이즘의 권역에서는——전통적 문학의 의미제공과 마주해서 도전적인 의미파괴를 그것에 대치시킨다. 이데올로기비평가들은 특히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을 통해 대변되고 있다고 보

37) 예컨대 뉘텐마트의 반탐정소설 《Der Richter und sein Henker》에 관한 Waldmann(1973): Theorie und Didaktik der Trivialliteratur. München, p.37ff. 참조.

는 이런 유형의 문학에 대해 각기 상이한 판단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보상적인 행복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유토피아적이지도 복고적이지도 않으며, 현실을 미화하지도 물화하지도 않는 문학이 평가절하될 수가 있는 건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정통적 구상에 정향된 이데올로기비판 내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논증한다. 즉 그러한 문학은 사회의 제관계를 혁명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반대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전망적이며”, 따라서 생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우어 Gerhard Bauer는 예컨대 “사적 유토피론적” 요구로써 카프카의 작품속에 표출된 부정적 경험들을 카프카 자신이 프라하의 노동산재보험회사의 한 직원으로서 “계급투쟁을 단지 그 고통의 측면에서만, 즉 산업이나 행정의 희생자의 관점에서만” 체험한 그의 “소시민적 계급상황”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³⁸⁾ 그에 의하면 카프카의 경우에는 “다소간은 악마적이지만 그러나 엄청난 정도로 탁월하며, 따라서 불가침적인 어떤 힘에 맞서서 유별난 고통의 자세가, 즉 원칙적인 무기력이” 발전했는데, 이를 그의 작품이 그에 상응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루카치도³⁹⁾ 카프카뿐 아니라 또한 카프카의 동시대적인 표현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인간의 “상실과 그것에 대한 절망”의 묘사 속에는 직접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에 의해 야기된 그들의 소시민적 절망감과 상실감, 자본주의에 의해 마구 짓밟혀 붕괴되는 데 대한 소시민들의 무기력한 항거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반면에 “리얼리즘적” 문학은 항시 얼마간은 소외의 극복이나 해체에 관계하며, 따라서 사회적 연관관계의 정체규명에 몰두한다고 주장된다. 물론 카프카의 작품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환영에 갇혀있는 어떤 한 상황이 표출되고 있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따라서 프루스트, 조이스, 베케트 또는 로브-그리에 같은 “후기시민사회의 퇴폐적” 작가들 역시 그런 시각에서 볼 경우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는 오직 “확실한 전망의 상실”과 “자본주의의 객관적 무전망성의 표현”으로서 “시민적 이데올로기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⁴¹⁾

하지만 여기서 적용된 가치평가기준들에 대한 견해는 좌익진영의 문학비평 내에서도 현격하게 엇갈렸고 또 최근까지도 그랬었다. 자신의 사후에 출간된 《미학이론》을 사무엘 베케트에 헌정하고자 한 아도르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올바른 의식은 예술작품 속에서 무엇보다도 “궁핍의 의식”으로서, “누적된 고통의 기억”으로서 문서화된다는 것이다.⁴²⁾ 그래

38) G. Bauer(1972): “Nochmals: historisch-materialistische Literaturwissenschaft, mit Kafka als Zeugen für den Klassenkampf”, in: alternative 15, H. 84/85, pp. 102-111, p. 105.

39) Lukács(1958): “Franz Kafka oder Thomas Mann?”, in: G.L.: Wider den mißverstandenen Realismus, Hamburg, pp. 49-96.

40) Lukács(1934): p. 138f.

41) Pracht/Neubert(1970): Sozialistischer Realismus. Berlin(Ost), p. 21.

42) Adorno(1974), p. 309, p. 387.

서 카프카로 말한다면 1963년 프라하 카프카 회의에서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 가로디 Roger Garaudy는 정통파가 “수정주의적”이라고 매도한 카프카 류의 문학에 대해 일종의 옹호론을 폈던 것이다.⁴³⁾ 이는 실로 문학으로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지만 한 요구들을 사회의식쪽에 제시하는 특정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구상에 대립하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5. 이데올로기비판에 대한 비판적 관점

문학작품이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만 하고 또 하나의 특정 시기나 하나의 특정 민족의 역사적 궤도만을 스케치하여 그것의 기본경향들과 미래적 전망들을 표현해야만 한다는 요구를 리얼리즘의 이름으로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철학적 요구이지 미학적 요구일 수는 없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에 인간이 세계와 갖는 관계에 관해서 극히 불완전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 작가의 특권이다. 그는 따라서 꼭 철학이나 역사가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주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훌륭하고도 때에 따라서는 숭고하기조차 한 예술성을 드러내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한 작가란 예컨대 소외의 이런 저런 국면들을 자기나름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즉 그는 소외의 원인과 그 극복방법들을 발견해내지는 못하면서도 역시 위대한 작가일 수 있음은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문학사적, 수용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처럼 작가지향적이고 텍스트지향적 관점으로부터 수용지향적 관점에 그리고 급기야는 의사소통지향적 관점에 이르는 문예학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방법비판적 의식을 이제는 이데올로기비판도 역시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류의 이데올로기비판은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별해야할 과제도 갖는다. 즉 그것이 작가의 의식 내지 작가에 의해 대변된 계급의식, 계층의식 또는 집단의식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텍스트인지 또는 텍스트수용의 이데올로기함의 성인지를 구분해야만 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관한 한, 텍스트를 통해 의식적으로 의도된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 즉 명시적 이데올로기와 전제된 이데올로기를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비판은 이를 초월해서 또한 자신의 대상과 자기고유의 입장이 지닌 역사성도 함께 천착해야만 한다.

문학텍스트가 때에 따라서는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정치사회적 견해에 반하는 입장을 매개한다는 사실은 엥겔스에 의해 자극받은 루카치의 발자크연구 이래로 이데올로기비판적 논증형식의 확고한 구성성분이 되고 있다. 위대한 작품에서는 리얼리즘이 “작가의 견해도

43) R. Garaudy(1969): “Kafka, die moderne Kunst und wir”, Nachdruck in: Raddatz(1969): Marxismus und Literatur, Reinbek b. Hamburg, Bd. 3, p.211.

불구하고 다르게 발현될”⁴⁴⁾ 수도 있다고 1888년 엥겔스가 하크니스 양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밝힌 명제를 루카치가 나중에 수용하여 작가 자신이 지녔던 긍정적인 정치적 입장과 그리고 그의 소설들이 지닌 부르주아비판 내지 자본주의비판간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응용한 시도는 유명하다.⁴⁵⁾ 이 논증방식을 통해 루카치는 토마스 만의 작품도 높이 평가할 수 있었던 반면에, 표현주의는 그것이 지닌 극도로 사회비판적 자기이해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변호를 단지 현재의 비판형식으로서 위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매도했던 것이다.⁴⁶⁾

작가의 ‘주관적’ 의도가 작가의 문학적이거나 비문학적 언표들의 ‘객관적’ 의미에 무조건적으로는 상응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이데올로기비판적 실천에 있어서 해석자가 자기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특징적인 거리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이 거리는 작가의 도를 단순히 재구성하려는 시도나 노력 또는 텍스트와 자신을 시험적으로 동일시하는 작가진술의 추수행을 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준해서 아펠 K.-O. Apel은 이데올로기비판가의 역할을 정신분석학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비교한 적이 있다.⁴⁷⁾ 그 의사는 환자의 언표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하지만, 또한 언제나 반복해서 이 언표를 경험과학의 범주로써 거리를 두고 설명하고 추궁하기 위해 이해의 노력을 중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처리방식은 특히 병리적 징후들이(이념소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도 않은 채 주체의 언표 속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역시 주체에 의해 의도된 것을 등한시함으로써만 합당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데올로기비판적 실천은 무엇보다도 “고급문학”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데, 이는 이데올로기비판이 자주 주체의 이해과정을 너무 일찍 중단하고 텍스트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작가의도를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가볍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해석가설에 대한 중요한 수정가능성을 앗아버리기 때문이다. 작가의 자기이해를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은 자기기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자는 텍스트에 대해 부적절하고 ‘몰이해적으로’ 될 수 있는 제의미와 기능을 그 텍스트의 속성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이데올로기비판은 역시 자주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바,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한정된 문제제기로써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텍스트의미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 의

44) Fr. Engels가 Margaret Harkness 양에게 보낸 1888년 4월자 편지, in: Marx/Engels(1967): *Über Kunst und Literatur*, 2Bde., Berlin(Ost), Bd. I, pp.157-159.

45) Lukács(1940): “Balzac und der französische Realismus”, Nachdruck in: G.L.: *Der historische Roman*, Werke, Bd. 6, Neuwied/Berlin, pp.431-521.

46) 특히 이에 대해서는 Lukács, “Es geht um den Realismus”(1938), in: Lukács(1971), pp.313-343와 Lukács(1934), p.115 참조.

47) K.-O. Apel(1971): “Szientistik, Hermeneutik, Ideologiekritik. Entwurf einer Wissenschaftslehre in erkenntnisanthropologischer Sicht”, in: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1971), pp.7-44.

미들을 극히 제한된 수의 범주로써 기술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텍스트의 의미복합성을 축소시키게 되는데, 그 방식은 환자의 아주 다양한 경험보고를 의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단 한 가지의 기본의미로 환원시키는 정신분석가의 방식에 상응한다. 이처럼 정통 이데올로기비판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술작품은 결국 모두가 계급갈등의 표현이 되며, 이때 그것은 모든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기본의미, 즉 “긍정적” 의미와 “해방적” 의미만을 지니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이데올로기 함의성과 그것의 수용 간의 분화이다. “해방적” 문학이라도 수용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취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우 애호되었던 이데올로기비판적 수용연구는 이를 여러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시도한 바 있다.⁴⁸⁾ 대부분 그러한 연구들은 한 작품에 자신의 동시대적이거나 특히 후대의 수용에 의해서도 역시 귀속되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자주 비이데올로기적이었던 “본원적인”, “참된”, “원천적인” 의미와 대결시킨다. 허위의식의 비판으로서 이데올로기비판은 이 경우 한 작품의 그릇된 수용에 대한 비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전에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작가들(예컨대 쉴러, 훔덜린, 하이네 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해서 수용하는 것은 이 경우 흔히 그들의 작품을 그 생성의 콘텍스트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을 수용자의 당면적 콘텍스트에 “비역사적으로” 전이시키는 일에 환원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콘텍스트와 관련시켜 논증하는 그런 류의 가치평가실천은 이미 수용연구 이전의 이데올로기비판에서는 자명한 것이었다. 언제나 반복해서 이데올로기비판은 원천적으로는 해방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사고형식이 변화된 역사적 조건하에서 어떻게 이데올로기적 사고형식으로 돌변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이 논증방식은 대체로 시민계급의 역사적 역할에 관한 진술과 결부되어 있다. 이 시민계급은 18세기만 해도 귀족의 지배로부터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통해 역시 진보적으로 평가되었겠지만 반면에 19세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승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들에 대해 점차 방어적이 되고 자신들이 획득한 특권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이데올로기비판의 “고전적” 저술이 되어버린 마르쿠제의 논문 《문화의 긍정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 사고과정을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 있다.

“상승하는 시민집단은 새로운 사회적 자유에 대한 요구의 근거를 보편적 인간이성을 통해 구축했다. 神이 설정했다는 진보해적 질서의 영원성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진보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대치시켰다. 그러나 이성과 자유는 점점 더 인간 대부분의 이익에 대립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초월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고반하는 물음에 대해서 시민계급은 단호히 대답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 문화였던 것이다. 이 문화는 본질적으로 관념주의적이다. 고립된 개인의 곤

48) G. Grimm(1974): “Rezeptionsforschung als Ideologiekritik. Aspekt zur Rezeption Lessings in Deutschland”, in: Über Literatur und Geschichte. Fs. G. Storz, hg.v. B. Hüppauf/D. Sternberger, Frankfurt a.M., pp. 115-150.

경에 대해 이 문화는 보편적 인간성으로써, 육체적 비참함에 대해서는 영혼의 아름다움으로써, 외적 노예성에 대해서는 내적 자유로써, 또 무자비한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의무라는 미덕의 제국으로써 응답한다. 新사회의 투쟁적인 상승의 시대에는 이 모든 관념들이 현존재가 달성한 조직을 초월하는 진보적 성격을 지녔지만, 시민제급의 지배가 안정화되면서부터 그것들은 점증적으로 불만족한 대중을 억압하면서 단순히 자기격상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봉사하게 된다. 즉 그 이념들은 개인의 육체적 심리적 위축들을 은폐시키는 것이다.”⁴⁹⁾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의 가치평가가 비역사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문화적 현상들의 역사성에 대한 통찰을 하나의 가치평가기준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그것은 사적 유물론의 전통에 의거해서 문학을 현실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인간의 의식(“상부구조”)을 존재(경제적 “토대”)에 결부시키고 또 이데올로기를 작가와 수용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련지음으로써 우선 이데올로기비판적으로 경향되지 않은 문예학에도 중요한 자극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문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사회사적 경향은 이데올로기비판이 없었다면 거의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비판이 비교적 넓은 지식사회학과 공유하는 방법사적 결합은 그것이 “문학”을 “사회적 현실”에 관련지우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통한 이데올로기의 의사소통적 매개과정을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이 매개과정 자체는 작가와 독자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과정으로서 분석되고 비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비판이 아직도 넓은 토대-상부구조의 도식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자신의 이데올로기개념을 대화이론적으로나 의사소통론적으로 기초할 수 없는 한, 그것은 문예학의 보다 발전적인 의사소통미학적 단초에 적절히 접맥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버마스의 이데올로기이론과 의사소통행위이론이 여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은 앞에서 암시된 바와 같다.

아겔과 하버마스가 가다머의 해석학⁵⁰⁾과 논전을 펼 때 적용한 특정 이데올로기개념은 이해와 설명의 정신분석학적 구상에 의거해서 언어적으로 표현된 허위의식을 (병적으로 왜곡된 언표에 유추해서) 지배에 의해서 제약되는 강제적 산물이라고 해석한다. 이때 인간적 욕구에 대한 요구를 개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회적 의사소통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의사소통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에 의해 왜곡된 의사소통은 욕구표현들을 단지 조작되고 은폐된, 사회적으로 허용된 형식으로서만 용납하고 그것의 진리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 구상에서 “진리”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예컨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점

49) H. Marcuse(1965): “Über den affirmativen Charakter der Kultur”, in: H.M.: Kultur und Gesellschaft I, Frankfurt a.M., pp.56-101, p.66.

50)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1971).

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정된 존재론적 단위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강제가 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로서 형성되어 나온 진술의 복합체요 표상의 복합체로서 정의되고 있다.⁵¹⁾

이상에서 요약된 이 구상은 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의 두 가지 관점을 드러낸다. 그 한 관점으로서 <진리의 合意理論>은 특별히 종교적, 과학적 또는 정치사회적 질을 들먹이면서 스스로 참된 의식의 대변자인 체하고 또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자의 의식을 권위주의적-훈시적으로 “거짓이라고” 배격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비판가들의 독단주의를 모면하게 해준다.⁵²⁾ 또 다른 한 관점으로서 진리개념과 이데올로기개념을 의사소통이론적으로 기초하는 일은 문예학에서 의사소통이론적 述話批判的 단초에 훌륭히 접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낳는다. 이처럼 여태까지 시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바람직스럽게 면모를 일신하려면 이데올로기비판은 이제 의사소통의 세층위를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⁵³⁾ 그것은 1) 문학외적 의사소통과정에서 형성되어 나온 허위의식이 어떻게 문학텍스트 속으로 유입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대체로 지금까지 추진된 바의, 즉 문학비평과 사회비판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는 이데올로기비판적 실천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비판은 이를 뛰어넘어 “왜곡”들을 목표로 하여 문학적 의사소통과정 자체를 분석해야만 한다. 이 경우 그것은 무엇보다도 글쓰기를, 또 나아가서는 문학의 매개와 읽기를 기형화시키는 지배에 의해서 제약되는 강제들을 비판해야할 뿐 아니라 또한 이 강제들이 어떻게 작품속으로 유입되는지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본질적으로 문학매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들(국가, 교회, 학교, 대학, 출판업, 라디오, 신문 등등)에 대한 비판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이 때의 비판은 부분적으로 특히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주창했던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에 접맥될 수 있다.⁵⁴⁾ 이러한 맥락에서 “통속문학”이 “고급문학”에 비해 더 많은 지배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것이 생성과 매개과정에 있어서 바로 지배에 의해 제약받는 강제들에 노출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왜곡된 의사소통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데올로기비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교유의 述話층위도 역시 고려에 넣어야만 한다. 문학적으로 매개된 내용과 문학을 매개하는 제

51) 특히 Habermas(1971):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in: J.H./Niklas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 a.M., pp.101-141 참조.

52) 궁극적 가치평가심급인 공개적 談論으로 명백히 회귀하고 있는 경우로 말하자면 Müller-Seidel(1969)(이 책은 자신의 모토와 함께 Martin Buber를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나는 학설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 줄은 안다”)과 Mecklenburg(1972), p.164ff.가 있다.

53) Mecklenburg(1972), Mecklenburg/Müller(1974); 이데올로기비판적 기술에서 하버마스를 언급하는 일이 망각될 적은 거의 없다. 그의 이론을 문예학적 용도로 진지하게 응용하는 일이 분명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도로서는 P.V. Zima(1991): Literarische Ästhetik, Tübingen, 참조.

54) Horkheimer/Adorno(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Neuausgabe, Frankfurt a.M. 1971, pp.108-150. 또한 Ch. Bürger(1973), pp.31-54에서의 개관도 참조.

도에 대한 동시적 비판으로서 이데올로기비판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의사소통형식과 조건들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역시 정당화될 수 있고 또 신뢰할만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비판은 단지 그와 같은 과제에만 만족할 수가 없다. 가치평가작업이 내용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심심찮게 빈축을 샀던 그것의 일면성을 극복하려면 이데올로기비판은 역시 그러한 기능적 가치평가를 뛰어넘어 자신을 술화 분석적 차원에서 예술적 가치평가와 접맥시키는 문제도 아울러 해결해야만 한다.

6. 문학적 가치평가의 새 지평을 위하여

문학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데올로기비판적 제이론의 형성에 따른 제반 연관관계를 놓고 다각적으로 토론이 전개됨으로써 텍스트구성, 텍스트생산, 텍스트수용, 텍스트분배, 텍스트전송의 모든 요소들이 비판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발전적인 이데올로기비판적 분석은 문학의 생성, 전파, 영향 및 기능에 대한 조건들뿐 아니라 또한 텍스트구성요소들 자체도 추적한다.⁵⁵⁾ 그런가 하면 근래에는 가치판단의 기초가 되는 “間主觀性”이란 기준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학문적 대화에 있어서 사회적·언어적 조건들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혐의를 받기 십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차라리 “間述話的 interdiskursiv” 내지 “間集團的 interkollektiv” 대화를 그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⁵⁶⁾ 이런 방식으로 학문론적으로나 이데올로기론적으로 자기무장에 철저한 이데올로기비판은 심지어 그 명칭조차도 <批判的文藝學 Kritische Literaturwissenschaft> 이라고 표명하고 나서게 된다. 이 노선에 준하는 전향적 비판적 가치평가이론 내에서는 분석의 두 측면이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어화용론적, 의사소통이론적 분석을 위한 내면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외면적 측면이다.”⁵⁷⁾ 아울러 기능적 가치평가에만 전념했던 종래의 이데올로기비판적 편향성은 예술적 가치평가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미리 주어진 관심의 연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가치평가의 단초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 이데올로기로서 문학 속에 유입되는 것에 문학을 환원시키는 일은 이제 제일차적 관심거리가 못된다. 오히려 관심의 주된 방향은 내용적 가치평가와 심미적 가치평가를 어떻게 매개시키느냐 하는 문제다.

뷔르거, 슐테-자세, 메클렌부르크 등에 의하면 비판적 가치평가는 작품 속에서 이데올로

55) v. Heydebrand(1984), p. 859; M. Nutz(1976): Zur gesellschaftlichen Dimension literarischer Normen und Urteile: Anmerkungen zur Forschungslage und Problemstellung, in: P. Gebhardt(Hg.) 1980, pp. 352-387; P.V. Zima(1991), pp. 381-393 참조.

56) P.V. Zima(1991): Literarische Ästhetik, Tübingen, p. 366 참조.

57) N. Mecklenburg(1980), in: P. Gebhardt(Hg.), p. 406.

기의 미적 변형들을 추적하는 분석을 목표로 한다. 비판적 가치평가는 텍스트의 내재적 연관관계들을 겨냥함은 물론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의사소통적 합주도 주목하게 된다. 급기야 “비판적 처리방식의 양면성”은 문학의 이중성, 즉 문학이 지니고 있는 “미적 차별성”을 규명하는 작업에서 입증된다는 것이다.⁵⁸⁾ 기호학적·구조주의적 이론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적 차별성이라는 개념은 비판적 제이론 내에서 예술을 상징적으로 매개된 사회적 행위로 의미 해석하기 위한 열쇠개념이 된다. 이 예술개념을 통해서 문학은 미외적인 것들과 특수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또한 현실을 시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서도 이해되는 것이다. 문학적이고 언어적인 형식들은 텍스트외적 이념소들을 형상화하는 다양한 가능성으로서 의미해석된다. 즉 “시적 기획들, 상상물들, 이미지들은…가치평가, 선입견, …학설들…의 운반을 위한 수단으로서 투여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⁵⁹⁾

이로써 현실적인 것의 상징적 의미해석이요 또한 의미재해적이기도 한 문학개념은 예술적 가치평가와 기능적 가치평가의 매개를 위한 기반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예술적 가치평가의 과제는 본질적으로 예술의 성격을 사회적 소여성들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또는 그것들의 모델화로서 분명히 밝히는 데에 있다고 간주된다. 형식·기법·양식·이미지 등은 사회적인 것이 예술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분석된다. 메클렌부르크는 “미학적이요 사회이론적·이데올로기비판적 성찰들을 엄밀한 내재적 분석과 연결시킬 것”⁶⁰⁾을 요구한다. 심미적 가치평가의 방법으로서 문학의 사회적 실천의 계기로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처리방식들이 다 동원된다. 즉 구조적으로 기능하는 문학사회학, 텍스트언어학, 의사소통이론, 마르크시즘적 문예학 등이 그것들이다. 심미적 가치평가와 내용적 가치평가의 관계를 묻는 물음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회귀함으로써 답변된다. 대체로 문학의 고유가치를 묻는 물음들은 오직 문학의 의사소통적 의미의 층위에서만 논구된다. 따라서 문학적 형식들과 미적 구조들은 “그것들이 이데올로기가 숨기고 있는 것을 말하도록 하는지”⁶¹⁾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때 매번 비판적 가치평가의 두 층위가 구분된다. 작가에 의해 수행된 가치평가의 층위와 그리고 미적 구조들 속에 주어지있는 현실적인 것의 가치평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비평가의 가치평가층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바람직스러운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실천이 되려면 언제나 반복해서 심미적 가치평가와 기능적 가치평가의 관계를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뿐 아니라 또한 문학의 미적인 고유가치성에서도 구체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숄테-자세에 따르면 문학은 역시 “모든 의사소통적 콘텍스트적 구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이 지닌 메시지성격으

58) N. Mecklenburg(1972), p. 98.

59) N. Mecklenburg(1972), p. 117.

60) 같은 저자, in: P. Gebhardt(Hg.) 1980, p. 401.

61) Th. W. Adorno(1958): *Noten zur Literatur I.*, Frankfurt a.M., p. 77.

로”⁶²⁾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문학은 기호학적 문학이론에 의거해서 역시 고유가치의 의미론적 가치론적 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 체계의 본질적 특징은 “감각적 유희적 성격”, 즉 “비구속성과 무귀결성”⁶³⁾이라 불리는 것이다. “비판적 가치평가는 유희적 자유인 동시에 또한 구속력있는 지시연관도 되는, 즉 자율성과 타율성이라는 이중성”^{63a)}으로서의 문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은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동시에 줄거리구도, 시간구도, 공간구도 및 인물구도의 형상화로 제시된 미적 의미연속체를 목표로 해서 가치평가될 수 있다. 특히 슐테-자세는 예술적 가치평가와 기능적 가치평가의 매개를 전통적인 가치평가논의로부터 넘겨받은 <반성의 연속체 Reflexionskontinuum>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행하려고 시도한다. 문제의 이 평가척도가 재해석됨으로써 문학은 개방적인, 즉 독자의 생활세계에 정향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동시에 또한 직접적인 생활세계적 귀결들을 배제하는 자기반사적 매체로서도 이해된다. <반성의 연속체>라는 기준을 통해서 문학은 “하나의 현실단면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역시 의미입장들의 비교정적인 미적 관류를 고집하는…하나의 전체”⁶⁴⁾로서 평가된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평가와 기능적 가치평가의 매개가 반성의 연속체 개념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정될 수 있는가는 결국 불분명한 채로 남는다. 슐테-자세에 따르면 <반성의 연속체> 개념을 사회사적이고 이데올로기사(史)적인 차원 만큼 확장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문학의 의사소통적 가치가 미적 가치의 척도로서 나타나기는 한다. 즉 한 작품의 가치는 포괄적이고 역사사회적인 협동체계 속에서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견해는 한 텍스트의 예술적·기법적 숙달성이 특정목적에 위해 투여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구적 메시지기능을 갖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미적 가치는 시적 담화의 자율적 기능, 즉 미적인 것의 “비구속성과 무귀결성”에서 기반을 구축한다고 본다. 바로 이 요소를 통해서 문학은 직접적인 생활 세계적 귀결들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바로 이 명백한 기능가치의 결여를 통해서 자신의 유토피아적 잠재력을 펼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兩價的 가치규정은 비판적 가치평가토론을 통해 주어진 문학의 상반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형상화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성공적인 예술형상의 가상 속에 있는 현실을 그것의 유토피아적 의미내용을 지향해서 초월하는 문학이 특히 높이 평가된다. 또 이 양가성이 비판적 문예학의 기본범주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다의성과 단의성, 자율성과 타율성, 진리계기와 허위의식 사이의 변증법적

62) J. Schulte-Sasse(²1976), p. 199.

63) 63a., 63b., 같은 곳, p. 205.

64) 같은 곳, p. 200f. 참조.

65) 같은 곳, p. 205.

긴장관계를 일의적으로 해소시키지 않고, 수수께끼같은 예술작품의 잠재적 구조성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 수수께끼성을 밝힐 수 있는 문학적 해석 내지 문학적 가치평가가 요청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이나 메클렌부르크의 <비판적 해석>도 그렇지만 슐테-자세의 <반성의 연속체>나 지마의 <텍스트사회학>도 역시 따지고 보면 모두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비판적 가치평가의 단초에 있어서 “규범매개와 인식매개의 문학적·시적 기법에 대한 분석을 방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함”⁶⁶⁾으로써 이데올로기비판적 가치평가의 처리방식들을 精緻化시키고, 그럼으로써 심미적 가치평가와 내용적 가치평가의 상호 관계를 개별텍스트에서 구체화시키는 일이 평가실천의 공허한 상투성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로 그러한 공준을 실천하려고 부르짖는 목소리로 보아 무방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바로 그와 같은 과제의 실천을 통해서 이 방법의 성과를 새롭게 시험에 부쳐볼 일이 우리 문예학계나 비평계가 맡아야 할 과업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전략제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本稿의 바램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Adorno, Theodor W. (1958): “Lyrik und Gesellschaft”, in: Th. W.A.: Noten zur Literatur I, Frankfurt a.M., pp.73-104.
- Adorno, Theodor W. (1974):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 Anz, Thomas (1977): Literatur der Existenz. Literarische Psychopathographie und ihre soziale Bedeutung im Frühexpressionismus, Stuttgart.
- Anz, Thomas (1982): Wertungskriterien und Probleme literaturwissenschaftliche Ideologiekritik, in: Bernd Lenz/Bernd Schulte-Middelich(Hg.), Beschreiben, Interpretieren, Werten, München, pp.214-247.
- Apel, Karl-Otto (1971): “Szientistik, Hermeneutik, Ideologiekritik. Entwurf einer Wissenschaftslehre in erkenntnisanthropologischer Sicht”, in: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 (1971), pp.7-44.
- Bauer, Gerhard (1972): “Nochmals: historisch-materialistische Literaturwissenschaft, mit Kafka als Zeugen für den Klassenkampf”, in: alternative 15, H. 84/85, pp.102-111.
- Berger, Peter L./Luckmann, Thomas (1969): Die gesellschaftliche Konstruktion der

66) Anz, Thomas(1977): Literatur der Existenz. Literarische Psychopathographie und ihre soziale Bedeutung im Frühexpressionismus, Stuttgart, p.232.

- Wirklichkeit. Eine Theorie der Wissenssoziologie, Frankfurt a.M.
- Bloch, Ernst(1959): Das Prinzip Hoffnung, Frankfurt a.M.
- Bürger, Christa(1973): Textanalyse als Ideologiekritik. Zur Rezeption zeitgenössischer Unterhaltungsliteratur, Frankfurt a.M.
- Freud, Sigmund(1908): “Der Dichter und das Phantasieren”, Nachdruck in: S.F.: Studienausgabe, Bd. 10, Frankfurt a.M. 1969, pp.169-179.
- Freud, Sigmund(1930): “Das Unbehagen in der Kultur”, Nachdruck in: S.F.: Studienausgabe, Bd. 9, Frankfurt a.M. 1974, pp.191-270.
- Garaudy, Roger(1969): “Kafka, die moderne Kunst und wir”, Nachdruck in: Raddatz (1969), Bd. 3, pp.210-216.
- Grimm, Gunter(1973): “Rezeptionsforschung als Ideologiekritik. Aspekte zur Rezeption Lessings in Deutschland”, in: Über Literatur und Geschichte. Fs. G. Storz, hg. v. B. Hüppauf/D. Sternberger, Frankfurt a.M., pp.115-150.
- Habermas, Jürgen(1971):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in: J.H./Niklas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 a.M., pp.101-141.
- Habermas, Jürgen(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Bde. Frankfurt a.M.
-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1971). Mit Beiträgen von Karl-Otto Apel, Claus v. Bormann, Rüdiger Bubner, Hans-Georg Gadamer, Hans J. Giegel, Jürgen Habermas, Frankfurt a.M.(Theorie-diskussion).
- v. Heydebrand, R.(1984): Literarische Wertung, in: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d. 4, hrsg. von K. Kanzog u.A. Masser, pp.828-871.
- Horkheimer, Max/Adorno, Theodor W.(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Neuausgabe: Frankfurt a.M. 1971.
- Klotz, Volker(1970): “Weltordnung im Märchen”, in: Neue Rundschau, H.1, pp.73-91.
- Lempert, Wolfgang(1973): “Zum Begriff der Emanzipation”, in: Emanzipation, hg. v.M. Greiffenhagen, Hamburg, pp.216-226.
- Lukács, Georg(1934): “‘Größe und Verfall’ des Expressionismus”, Nachdruck in: Lukács (1971), pp.109-149.
- Lukács, Georg(1940): “Balzac und der französische Realismus”, Nachdruck in: G.L.: Der historische Roman, Werke, Bd. 6, Neuwied/Berlin 1965, pp.431-521.
- Lukács, Georg(1952): “Eichendorff”, in: G.L.: Deutsche Realisten des 19. Jahrhunderts, Berlin(Ost), pp.49-65.

- Lukács, Georg(1955): Probleme des Realismus, Berlin.
- Lukács, Georg(1958): “Franz Kafka oder Thomas Mann?”, in: G.L.: Wider den mißverständenen Realismus, Hamburg, pp. 49-96.
- Lukács, Georg(1971): Essays über Realismus, Werke, Bd. 4, Neuwied/Berlin.
- Marcuse, Herbert(1965): “Über den affirmativen Charakter der Kultur”, in: H.M.: Kultur und Gesellschaft I, Frankfurt a.M., pp. 56-101.
- Marx, Karl/Engels, Friedrich(1967): Über Kunst und Literatur, 2Bd., Berlin(Ost).
- Mecklenburg, Norbert(1972): Kritisches Interpretieren. Untersuchungen zur Theorie der Literaturkritik, München(허창운 譯: 변증법적 문예학과 문학비평. 서울: 동서문학 1991).
- Mecklenburg, Norbert(Hg.)(1977): Literarische Wertung. Texte zur Entwicklung der Wertungsdiskussion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dtv) und Tübingen(Niemeyer).
- Mecklenburg, Norbert(1979): Wertung und Kritik als praktische Aufgaben der Literaturwissenschaft, in: I. Degenhardt(Hg.), Literarische Wertung, Stuttgart.
- Mecklenburg, Norbert(1980): 위와 같은 제목으로, in: P. Gebhardt(Hg.), Literaturkritik und literarische Wertung, Darmstadt.
- Mecklenburg, Norbert/Müller, Harro(1974): Erkenntnisinteress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 Müller-Seidel, Walter(1969): Probleme der literarischen Wertung. Über die Wissenschaftlichkeit eines unwissenschaftlichen Themas, Stuttgart[¹1965].
- Pracht, Erwin/Neubert, Werner(Hg.)(1970): Sozialistischer Realismus — Positionen. Probleme. Perspektiven, Berlin(Ost).
- Schrader, Monika(1987): Theorie und Praxis literarischer Wertung.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d -didaktische Theorien und Verfahren, Berlin/New York.
- Schulte-Sasse, Jochen(1976): Literarische Wertung, 2., völlig neu bearbeitete Aufl. Stuttgart [¹1971].
- Waldmann, Günter(1973): Theorie und Didaktik der Trivalliteratur. Modellanalysen —Didaktikdiskussion—literarische Wertung, München.
- Williams, Raymond(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 Zima, Peter V.(Hg.)(1977): Textsemiotik als Ideologiekritik, Frankfurt a.M.
- Zima, Peter V.(Hg.)(1980): Textsoziologie. Stuttgart(허창운 譯: 텍스트사회학. 서울: 민음사 1991).
- Zima, Peter V.(Hg.)(1982): Literatursoziologie/Textsoziologie, in: Dietrich Harth/Peter Gebhardt(Hg.), Erkenntnis der Literatur, Stuttgart, pp. 161-194.
- Zima, Peter V.(Hg.)(1989): Ideologie und Theorie, Tübingen.
- Zima, Peter V.(Hg.)(1991): Literarische Ästhetik, Tübingen.
- 허창운(1987²):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출판부, 서울.

〈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ie literarische Wertung als “Ideologiekritik”**Tschang-Un Hur**

Das Problem der literarischen Wertung ist ein heikles Thema an sich, da die Wertungskriterien axiologisch mehrschichtig, aber auch historisch variabel zu reflektieren und zu bestimmen sind. Besonders nach dem plötzlichen Verschwinden der ideologischen Spannung des “ostwestlichen” Hegemonialanspruchs ist nun das Orientierungsproblem für uns als einziges geteiltes Land der Erde sehr aktuell geworden.

Insofern geht diese Studie zunächst davon aus, daß die herkömmliche Ideologiekritik als praktizierte literarische Wertung im großen und ganzen den veränderten politischen Umständen nun unangemessen und kaum effektiv durchführbar ist. Daher bräuchte man nun dringend zur Ergänzung und Flexibilisierung der dogmatisierten literarischen Wertung eine innovative, literaturwissenschaftlich durchdachte Anregung von der Seite der ästhetischen Ansätze bzw. Denkweisen moderner semiotischer Provenienz.

Die Ideologiekritik hat zwar in aller historisch-materialistisch fundierten Ästhetik einen zentralen Stellenwert gehabt. Bei uns ging auch der erste Impuls derartiger Ideologiekritik nicht zuletzt in den 80er Jahren aus der Position der sogenannten Minjung-Literatur hervor. Aber die Ergebnisse der ideologiekritisch vorgehenden Wertungspraxis scheinen von jetzigen Befunden aus gesehen nicht so befriedigend ausgefallen, meistens stereotyp in Leerformeln gehalten zu sein. Um sich aus diesem Dilemma zu retten, wurden schon einige Versuche als Modell vorgeschlagen (beispielsweise Schulte-Sasses <Relexionskontinuum> oder Zimas <Textsoziologie>), der unerfreulichen Diskrepanz zwischen der sogenannten funktionalen Ideologiekritik und der künstlerisch-ästhetischen Wertung literaturtheoretisch zu begegnen. Unsere Aufgabe besteht in der Praktisierung dieses Modells. Obwohl man mit Zuversicht “Emanzipation” und “menschliche Mündigkeit” als Grundsatz der ideologiekritischen Wertung aufgestellt und sich sogar literaturdidaktisch darum bemüht hat, scheint die Produktivität der sogenannten “monologischen” Wertung dem erhofften Niveau weitgehend nicht entsprechen zu haben.

Andererseits ist die Behauptung, daß die literarische Wertung als eigene selbständige Domäne zu erklären sei, insofern hinfällig, als ihr Arbeitsfeld von den anderen etablierten

Spezialgebieten der Literaturwissenschaft schwer abzugrenzen ist, d.h. ihre Tätigkeitsart mit anderen Arbeitspraktiken mehrschichtig verflochten zu sein scheint. Daher entscheidet über die Gültigkeit in der literaturwissenschaftlichen Wertungspraxis, daß die ideologiekritischen Argumente nicht nur aus den äußeren Zusammenhängen der Texte, sondern auch aus den spezifisch literarischen Verfahren entwickelt werden.

Auf jeden Fall wird Ideologiekritik als Verfahren der literarischen Wertung und Interpretation von der Geschichtlichkeit literarischer Texte gefordert, da diese in ihrer ästhetischen Bestimmtheit an Ideologischem notwendig Anteil haben. Nach der Auffassung der dialektischen Ästhetik wird <Ideologie> als gesellschaftlich bedingtes falsches Bewußtsein schon im Begriff der Ideologiekritik vorausgesetzt. Aber diese Ideologie enthält nämlich bei sich "ein Moment des Unwahren, das in der Verzerrung und damit auch Verdeckung der Wirklichkeit liege, zugleich aber ein Moment des Wahren, das eben aus der Begründung in der Wirklichkeit hervorgehe." (Marx) Funktional wird Ideologie, die unbewußt entsteht, als verhüllende Rechtfertigung und Bestätigung von partikularen Interessen und Positionen, die sich gesellschaftlich nicht unmittelbar realisieren lassen. Gerade an dieser Stelle setzt sich z.B. Zima kritisch mit einer soziosemiotischen Auffassung der Ideologie ein. Anhand der notwendig kritischen dialogische Einstellung der bisher üblichen "monologisierenden" Ideologiekritik gegenüber könnte evt. Zimas Vorschlag eine Abhilfe liefern, daß man die Ideologie etwas differenzierter als früher im Sinne einer semantischen und narrativen Struktur auffassen und auf deren Basis eine neuartige soziosemiotische Ideologiekritik entwerfen soll. Die Frage wäre nun, wie ergiebig sich die Praxis dieser literarischen Wertung erweisen kann.